

농촌 다문화가족 생활농업기술보급 방안

오 승 영
농촌진흥청 농촌생활과장

1. 서 론

국가간 인적교류 활성화와 국내여성의 농촌거주 기피로 인해 농촌의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의 국제화와 개방화 확대는 한국인의 국제사회 진출과 외국인의 국내의 노동시장 진출을 원활하게 하여 남녀노동자간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국제결혼으로 이어졌다.

최근 국제결혼의 흐름은 지역간 혹은 사회계층간 결혼수급의 불균형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국제결혼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농촌지역이나 도시 빈민지역 남성의 경우 지역사회 혹은 국내에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고 결혼 적령기를 넘기면서 그 대안으로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경제적 낙후성과 남녀 차별적인 도시이주로 따른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농촌 남성의 결혼은 농촌 지역사회 내부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도시지역 여성과의 결혼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 여성의 경우 농촌남성과의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

이처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남성이 국내 여성과의 결혼이 어려워짐에 따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고려하게 되었고, 농촌지역의 노총각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국제결혼 비율이 2004년 27.4%에서 2005년 35.9%, 2006년 41%까지 증가하였다. 더욱이 일부 농촌지역의 경우 그 비율이 40%를 넘어서고 있는데, 예를 들면, 충북46.3%, 경북 43.6%, 전북 42.3%, 충남 41.4% 등과 같다(통계청, 2006). 이처럼 농촌지역 국제결혼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며, 향후 국내적 상황변화가 없다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의 다문화가족은 농촌의 가족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주체의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농업 여건의 전개로 볼 수 있다. 고령화, 과소화 되는 농촌에 이들은 새로운 인적자원이며 여성농업인의 새로운 주체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농가의 구성원이 되어 여성농업인으로 역량을 길러 농촌생활에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문화가족이 우리 농업을 이해하고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접근하기 쉬운 생활의 방식으로써 농업을 보고자한다.

2. 농촌 다문화가족의 생활농업인 육성

한국농업대학 김종숙 교수가 정립한 생활농업의 용어를 정리해보면 생활농업은 일반화되지 않은 다소 생소한 개념이나 농업의 생산성 보다는 농업생활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농업과는 차이를 두고 있으며 생활세계에 비중을 두고 농업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농업은 생명을 다루는 생명산업이라고 말한다. 산업이기 전에 농업은 생활이기 때문에 생명체로서 인간의 본성이 농업을 추구한다.

자연이 살아 있는 농촌의 지역공간에서 생활은 농업과 모두 연관되어 있다. 산업은 생산력을 축으로 물질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움직이는 것이나 생활은 인간의 사상, 문화 등의 세계이다.

생산력을 축으로 한 물질세계는 농업생산기술과 생산물 등 농지, 작물, 기계, 농법, 농산물의 안전성, 농업생산기술,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물질의 영역이며, 경제, 소득, 가격 등 농가경영문제와 농산물 유통, 가격이라는 화폐로 귀속되는 영역이다.

이에 반해 생활로서의 농업은 인간의 사상 문화 등의 생활세계로서 인간의 속성, 주체성, 조직 등 농업인 주체성과 농촌조직문제, 생산자와 소비자등 사람의 영역과 생활양식이나 생활구조와 관련된 농촌생활문화, 식생활, 도시적 생활양식 등 생활영역이다.

생활농업은 농업의 생명력에 대한 본능적 추구활동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물질이나 화폐는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고 결과물로 얻어지는 것으로 본다. 경제논리가 아닌 생활논리로서 활동이 전개되는 것이므로 일반농업 경영과는 차이가 있다.

생활농업의 주체에는 농가여성, 고령자, 아이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귀농인, 겸업농가, 전원생활자도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 생활농업의 내용과 방식은 농에 관련된 사적인 제반 활동만이 아니라 농촌사회의 일상적인 인간관계 즉 이웃과의 관계, 지역공동체 활동, 농촌 문화활동, 정보활동,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기업의 윤리경영이 거론되는 시대에 농업은 윤리를 바탕으로 영위되는 산업이다. 생명윤리, 공동체윤리로 진정한 글로벌을 보여줄 수 있는 농업의 장은 생활농업에서 더욱 설득력이 있다. 생활농업을 영위해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농업을 희망 있는 것으로 보는 원점이라 할 수 있다.

농가의 부부는 가족구성원으로서만이 아니라 농업경영 파트너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농업경영능력이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농가에서는 부인에게 공동경영자로서의 역할을 바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농촌사회에 적응하는 기간을 갖고 농업 생활능력을 갖춘 후에 가능한 일이다. 우선은 농촌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농업에 관련된 생활능력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의 여성은 농촌출신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농촌 문화와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을 극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이라고 생각된다.

다문화가족을 생활농업인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그들이 농업을 이해하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종 단계에는 농가의 경영주체로서 스스로 농업을 즐겁고 보람 있는 일로서 생각하는 적극적인 여성농업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한다는 관점에서 농촌 다문화가족의 생활농업인 육성 방안은 도시생활농업인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표 1>, <표 2>).

<표 1> 도시생활농업 단계

구 분	내 용	비 고
입문기	교육을 통해 농업, 농촌 가치 이해	
적응기	농촌의 정착과정에 앞서 도시 배란다, 옥상, 등에서 직접 적응해보는 시기, 농촌 참여 시기	
응용기	식물 작물재배에 대한 이해가 커지면 가까운 주말농장에 참여하여 소규모 영농활동을 하는 시기	
정착기	농촌에 정착하는 시기, 농장을 만들고 논밭을 가꾸고 살집을 만드는 시기	

박영선, 도시생활농업 사업전략

<표 2> 농촌 다문화가족 생활농업인 육성 단계(안)

구 분	내 용	비 고
입문기	농촌 생활, 문화 적응 시기	농촌여성 학습단체와의 지속적인 멘토링 운영
적응기	우리나라 농업, 농촌 이해 및 기초 농업 교육	
응용기	다문화가족 농가의 주작목 재배기술 등 영농기술 교육	
정착기	농촌 후계여성농업인으로 정착	

귀농인이나 도시생활농업인은 입문기에 농촌을 이해하고 소규모 영농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는 단계를 거친다. 농촌 다문화가족은 우선 이문화에 대한 생활 적응을 바탕으로 하여 농촌 이해와 기초농업을 배우고 농가의 농업경영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여성농업인으로 육성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할 수 있겠다. 그 전체적인 과정에서, 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와 농촌여성학습단체의 멘토링 지원이 결합되어야만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농촌 다문화가족을 생활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다문화가족 여성이 생활농업인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생활과 문화에 적응 할 수 있어야겠다. 그러긴 위해선 한국음식, 전통문화, 제사, 가족관계 등 농촌생활과 농업문화를 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접근 방법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겠다(<표 3>).

159개 시,군 네트워크가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현장밀착 지도가 가능한 전문 인력을 통한 생활과학기술교육으로 농촌 생활 전반에 대한 필요지식과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표 3> 농촌 다문화가족 부부교육 과정 프로그램(안)

구 분	내 용	비 고
1일	○ 마음의 벽 허물기 (부부소개, 레크리에이션)	
	○ 내안으로의 여행 ○ 나의 감정·상징 그리기	
	○ 문화체험 및 농촌생활의 이해 -웃놀이, 전통 혼례복과 영상편지 촬영	
2일	○ 이심전심 코너 ○ 우리 가족 비전 세우기 ○ 서로 믿고 돕는 부부	
	○ 희망음식 만들기 (오색송편, 오색경단)	
	영상편지 소개 및 기념촬영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양순미박사>

둘째, 다문화가족의 농업의 원리와 전체적인 농업 방식 등 우리농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알고 지역농업에 대한 이해와 생산과 가공, 판매의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로 지역민과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문화가족이 우리 농업을 이해하여 농업생활능력을 배양 할 수 있도록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생활농업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농업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생활농업 교육 프로그램 안을 제시해 보았다(<표 4>).

<표 4> 생활농업교육 프로그램(안)

구분	내 용	비고
1강	한국 농업의 이해	
2강	농촌의 공동체 생활문화	
3강	땅 개간과 씨뿌림	
4강	흙과 퇴비	
5강	생태적 발농사 개요	
6강	공생의 논농사 개요	
7강	우리지역 농업 알기	
8강	영농현장 탐방	

또한, 원예치료나 식물재배처럼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교육은 다문화가족에게 농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생활적응, 언어습득 또한 향상될 수 있다.

원예연구소에서는 2007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충남 서천의 다문화가족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원예치료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 여성들은 정신건강과 안정, 부부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고 다문화가족 여성들 간의 유대감이 생기면서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소외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표 5>).

<표 5> 농촌 다문화가족 원예프로그램

회기	일시	활 동 명	기 대 효 과
1	4/19	달콤한 파티 -꽃케익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높임.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어울려 문화의 다양성을 느끼고 수용 받는 느낌을 갖도록 함
2	4/26	설레임 -식물번식해보기	-새로운 지식을 배워봄으로써 자신감을 갖도록 도움
3	5/3	사랑가득 -사랑의 꽃바구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시부모나 가족들에게 꽃바구니를 선물하여 긍정적인 관심과 피드백을 받도록 돕는다.

4	5/10	작은 세상 -집시정원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꾸며보면서 자신의 환경에 관심과 친근감을 가지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 -여러가지 식물을 경험하는 기회 제공함.
5	5/17	화려한 변신 -스카프염색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주변에 대한 관심 유도. -공동작업을 하면서 집단원간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
6	5/31	햇살따라 바람따라 -꽃잎따서 말리기	-야외활동을 하면서 해방감을 느끼도록 함. -동심을 일깨우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돕는다.
7	6/7	다른 세상 -식물 모종 옮겨심기	-뿌리내린 식물을 예쁘게 장식한 화분에 옮겨 심음으로써 안정감을 느끼도록 함.
8	6/14	꽃담고 사랑담고 -누름 꽃 액자	-자신의 선택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는 경험 제공 -부부간의 의사소통 매개체로 활용되도록 함.
9	6/21	이젠 할 수 있어 -박살내기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 -긍정적인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좋은 기억을 유지하도록 도움.
10	6/28	즐거운 회상 -벽걸이 세상	-프로그램에 대한 회상의 기회 제공 -긍정적이고 즐거운 기억을 간직하도록 도움.

<원예연구소 김형득 박사>

셋째, 농촌 다문화가족과 농촌여성학습단체와의 멘토링으로 농촌의 경험과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농촌여성은 농촌생활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다문화가족 여성의 멘토가 되어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그들이 생활농업인으로 정착하는데 주춧대 역할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멘토링이란 멘토와 멘티가 합의된 목표하에 상호인격을 존중하며 멘티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핵심인재로 육성하는 체계적인 활동으로 멘토인 농촌여성학습단체회원은 칭찬과 격려로 멘티가 자신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여야하며 멘티인 다문화가족 여성은 멘티를 신뢰하여 농촌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멘토링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지도가 필요하겠다.

멘토링 활동으로는 생활적응 교육 안내와 동반, 생활기술지도(의, 식, 주관련) 영농지도, 정서적 지지자, 조언해주기, 지역사회 서비스안내 등 이 있겠다. 또한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지역의 농촌여성들과 관계를 맺고 조직의 일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공동체 활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겠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과 농촌지역사회에 다문화에 대해 의식교육으로 편견

과 차별을 버리고 열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대중 교육이 필요하겠다. 일방적인 한국 문화 주입이 아닌 그대로의 다문화화를 받아들이는 인정의 마음과 농촌사회의 일반화된 다문화 포용 의식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농촌 다문화가족을 생활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언급해 보았다. 아직 생활농업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지만 다문화가족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생활농업인 단계가 필요하며 전문농업인과 더불어 농업의 범위와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고 농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농촌의 잠재 인적 자원인 다문화가족이 건전한 농촌가정의 농업경영주체로 정착하여 농촌에 새로운 후계 인력이 되고 다문화가 공존하는 열린 농촌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3. 우리 청의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

가. 사업추진배경

- 90년대 우리나라 농촌은 경제의 활력 감퇴와 경쟁력 저하 등의 어려움으로 농업 인들은 농촌에 대한 매력을 상실하여 농촌을 떠나는 상황이 빈번하였고, 농촌주거시설도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촌총각들의 경제사정도 여의치가 않아 도시 여성들이 농촌에 시집가기를 꺼려하는 현상이 나타나 농촌의 노총각이 점차 늘어나 사회문제가 되었음.
- '90년부터 농촌청년의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촌에 정착하는 건설한 청년들의 결혼문제를 적극 도와줌으로서 풍요로운 농촌건설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청년 성혼 돕기 사업을 추진하였음
- 지방단위에서는 시군마다 결혼상담소를 설치하고 총각들의 카드를 비치하여 신랑·신부교실 등 교육을 통한 교양교육과 농촌청년의 만남의 장을 개설하고 선남선녀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여 결혼이 성사되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하였고, 결혼비용 절감을 위하여 예식장소 제공과 성혼주례, 합동결혼식을 추진하는 한편 부엌개량 등 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하여 총각농가의 주거환경개선에 앞장서기도 하였음
- '91년도에는 농촌청년성혼 돕기 일환으로 생활문화, 언어, 민족성이 같은 중국연변 동포와의 성혼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중국동포와의 성혼 돕기는 한중관계가 미수교상태라 어려움이 많았지만 “사단법인 가정복지연구원”(회장 노승욱)와 공동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추진하여 농촌총각들의 세 차례 중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만들어 16쌍의 남녀가 성혼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음

- 강원도의 경우에는 지역 국회의원께서 중국동포와의 국제결혼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농업기술원과 시군센터가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음
- 그렇게 94년까지 추진해오다가 국제결혼을 중매로 하는 민간단체나 국제결혼정보회사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또한 중국처녀들이 한국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국에 위장결혼 하는 경우도 우려되어 점차 성혼돕기 사업은 축소되고 지방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 지방단위에서는 외국여성과의 성혼돕기 사업을 추진하다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여성들에게 농촌생활을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해 왔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음

나. 농촌생활지도 조직을 통한 국가적 기능 수행의 필요성

- 농촌생활적응이 어려운 다문화 가족원에게 지속적이며 모성애적인 섬세한 감성과 감각을 갖춘 지도인력으로서 전국적으로 농촌생활지도 네트워크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음
- 농촌생활과학기술의 전문 인력으로 농촌생활 및 농촌의 공익적 가치 등 농촌사회 전반적인 연구기능과 지도기능을 겸비하여 있으면서 중앙·도·시군·읍면까지 지도체제가 구성되어 사업수행에 효율적인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음
- 농촌 다문화가족원에게 필요한 생활과학기술, 영농기술, 가족간의 화목, 생활예법 등 농촌생활 전반적으로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수집·분석·지원 할 수 있는 지식이 축적되어 있음
- 생활기술 및 영농기술 등 기술과급을 위한 프로그램 디자인 및 매니저 역할과 컨설팅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갖추어짐
- 농촌진흥청 소속의 학습단체가 법인화되어 있어 NGO를 통한 멘토링 제도 등 민간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과제지도를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음
 - 한국농촌지도자회(89천명) 생활개선회(97천명) 4-H회(70천명)

다. 2007년도 추진실적

-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방향 모색 협의회 ('07 1. 23)
 - 농림부와의 사업 차별화 모색 다문화 용어 정립
 - 농림부에서는 초기 다문화여성 대상으로 한글교육 등을 실시하고 진흥청에서는 일차적으로 언어적인 문제가 다소 해소된 다문화여성을 대상으로 농촌의 후계 여성인력으로 육성하도록 함.

- 농촌 다문화가족 용어는 한 가족 내에 복수의 문화가 있고, 서로 다른 문화를 향유하여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자는 뜻을 가짐
-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 심포지엄 개최 ('07. 5. 16)
 -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의 공감대 형성 및 과제 도출
 - 부처별 지원 정책 분석을 통한 농촌진흥기관의 특성화된 지원방안 방향 정립
 - 농업인 학습단체회원과 다문화가족 여성의 멘토링 시스템 개념 확립
- 농촌 다문화가족 멘토링 워크숍 개최 ('07. 9. 3)
 - 시,도 멘토(농촌여성학습단체회원) 멘티(다문화가족) 대표자 결연 및 임명장 수여
 - 성공적인 멘토링을 위한 핵심기술 습득
 - 시부모, 남편 등 가족과의 갈등해결 및 소통 방법 교육
- 농촌 다문화가족 전문기술 교육 ('07. 10. 15~17, 27명)
 - 농촌 다문화가족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문화가족을 이해, 지도할 수 있는 제반 지식 습득
 - 사회통합지원정책, 상담의 기초, 멘토링 핵심스킬, 동남아 사회와 문화, 인권문제, 법률상식 등
 -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지원정책 공유 및 시, 군 정보 교류
- 지방 단위 교육 프로그램 추진 내용 ('07 상반기)

시·도	실적	내용	비고
	262회 3,529명		
경기	5회 37명	한국음식 교육(전통음식,밀반찬등)	
강원	28회 233명	한국음식, 원예활동(가정원예포,실내식물), 취미교양,가족관계	
충북	30회 221명	한국음식(장류,생활요리), 전통민속놀이, 전통문화, 한글교육 다문화 가족 아동캠프	
충남	78회 1,333명	한국음식, 생활문화, 한글,생활예절 등	
전북	82회 1,227명	한글,한국음식, 컴퓨터, 예절, 취미과제, 농산물가공교육, 천연염색, 건강관리, 가족관계 등	
전남	21회 260명	식생활, 한글교육, 문화체험, 노래교실, 의식교육	
경남	16회 133명	한국음식, 전통문화, 가족관계, 한글교실, 취미과제	
대전	1회 55명	한국음식, 농촌체험	
울산	1회 30명	한국음식, 생활원예	

○ 농촌여성 조직체와 농촌 다문화가족과의 멘토링 추진 현황('07 상반기)

시·도	멘토링 실적			비고
	결연인원(쌍)	결연대상(방법)	활동내용	
계	424			
강원	12	-생활개선회원(1:1)	-농촌생활적응프로그램운영, 영농지원, 식생활 교육 등	
충북	22	-농촌여성(1:1)	-언어, 풍습, 전통교육	
충남	83	-생활개선회원(1:1)	-한국음식, 한국문화 교육, 상담	
전북	91	-생활개선회원(1:1)	-교육도우미, 상담	
전남	60	-농촌여성(1:1)	-우리음식만들기, 한국어, 우리문화체험	
경북	139	-생활개선회원 (1:1, 1:3, 2,3:1)	-교육행사 동반 참석, 가정방문, 정나누기행사, 한글교육, 전통문화, 가족관계 상담 등	
경남	17	-생활개선회원(1:1)	-지역적응, 생활상담 및 문화배우기	

4. 2008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 추진계획

가. 목적

- 농촌 다문화 가족의 농촌생활적응 및 생활농업 기술 교육 실시로 향후 농촌의 후계농업인력 육성
-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족 유대 강화와 이해증진으로 공존하는 농촌 다문화사회 실현

나. 추진방향

- 농촌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 및 지역사회 생활적응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
- 농촌 다문화가족의 농업능력 배양으로 후계여성농업인력 육성
-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농촌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수용 분위기 및 열린 의식 제고
- 농촌여성학습단체 회원과 다문화가족의 멘토링 운영으로 현장밀착형 지원

다. 사업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 20개소('08) 200백만원
- 세부추진요령

- 부부 · 가족 등 대상별 농촌생활 적응 교육프로그램 운영
 - 농촌생활에 필요한 생활기술 및 생활적응 교육 지원
 - 식생활관리, 영양교육, 한국음식, 향토식품 등 한국형 식생활 지도 및 전통 식문화 지원
 - 생활예절, 가정관리, 남편 및 가족 관계, 고부간의 갈등해소, 풍습 등 농촌 사회 및 생활 익히기 교육
 - 의생활 및 피복관리, 환경친화형 농가주택 리모델링, 생활환경정비 등 농촌 생활환경개선 지원
 - 농촌 다문화가족 여성들의 갈등해소 프로그램 지원
 - 다문화가족(시부모, 자녀, 남편 등)에 대한 교육 운영
예) 고부간 정 나누기 교육, 고부간 갈등해소 프로그램 등
 - 농촌 지역사회의 열린 다문화의식을 위한 대중 교육
 - 성공적인 농촌 다문화가족의 인적자원 활용한 잠재력 개발
 - 초기 농촌 다문화가족의 생활적응 컨설턴트,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등
- 농촌여성학습단체회원과 다문화가족의 멘토링 운영
 - 생활개선회 등 농촌여성학습단체 회원과 멘토링 체제 구축
 - 다문화가족의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멘토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역량
 - 멘티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 교육 강화
- 후계 여성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경영 능력 배양 및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추진
 - 농업의 이해, 영농기술, 농업경영 등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틀 조성 및 농업 인적자원 개발
 - 농작업 재해 요인 축소를 위한 문제의식 및 예방능력 배양을 위한 안전한 농작업 관리 교육 및 보조구 지원 등
 - 후계 영농자금 및 영농시설 설치 지원 등 안정적인 농촌정착 여건 및 기반 조성

5. 금후계획

- 농촌생활적응 교육, 가족과 농촌지역사회의 열린 의식 교육, 멘토링 교육 매뉴얼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농촌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농업기술, 한국음식 계량화된 레시피, 생활정보 등 농촌생활농업과 관련된 모국어 자료 제작
- 소공예품 제작, 농산물 가공 등 농촌 부업활동 지원 및 기반조성
- 농촌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독거가족 등 농촌의 건강한 가족문화를 위한 농촌 가족협회 조직